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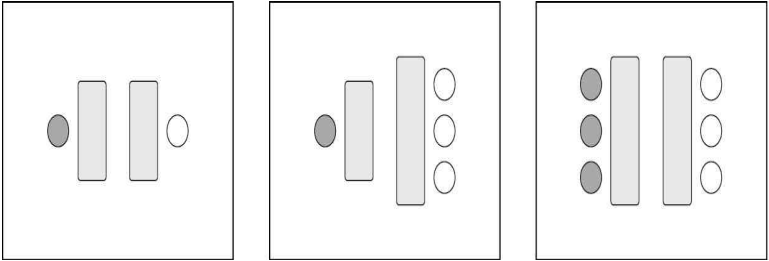
국어 영역 (A형)

[1~2] 다음은 강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입시를 앞둔 여러분에게 대학 입시 면접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특성에 맞는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에 진학하려고 한다면, 잡지나 신문 등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찾아본 후 예상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실제 면접관 앞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 보면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면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면접> <일대다 면접> <다대다 면접>

면접 유형이 다르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대다 면접’ 유형의 경우라면 질문하는 면접관이 여러 명이므로 면접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에 집중해야 하고, 질문한 면접관의 눈을 응시하며 답변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자들이 하는 답변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의도가 사실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적 정보를 묻는 질문이라면 객관적 내용을 토대로 명확하게 대답하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라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대답합니다.

만약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찬반 입장을 생각해 본 다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 그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근거는 보통 세 가지 이상 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실제 사례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혹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할 경우에는, 앞서 했던 답변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해서 대답해야 합니다.

1. 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강의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내용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②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내용을 선정해야겠어.
 - ③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야겠어.
 - ④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⑤ 강의 중에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며 내용의 수준을 조절해야겠어.

2. 강의를 들은 학생이 <보기>의 면접 상황에서 고려할 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면접 유형: 다대다 면접
- 면접 질문: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

면접관이 질문할 때

- 질문한 면접관의 눈을 응시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답해야 해. ①
- 찬반 의견에 대한 질문이므로 그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해야 해. ②
- 추가 질문이라면 근거가 부족했던 경우에는 사례나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해야 해. ③

다른 지원자가 대답할 때

- 자신의 답변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지원자의 답변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해. ④
- 다른 지원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처음에 정한 자신의 입장을 바꿔야 해. ⑤

3. 다음은 학급 회의의 일부이다. 회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상현: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거 다들 알고 있죠? 작년에도 블랙아웃을 겪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시간에는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논의할까 합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가끔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교실에 에어컨이 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은혁: 맞아요. 전 오늘 맨 먼저 등교를 했는데 교실 뒤편의 선풍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 석현: 진짜? 그거 정말 위험한데. 과열돼서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 지혜: 지금은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맞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실이 빌 경우에는 담당자가 소등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수: 전 에어컨 온도를 적정 수준 이상 올리지 않도록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선영: 그건 말도 안 돼. 집에서 더운데 학교에서까지 덥게 지내라는 거야? 네가 전기세를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시원하게 살자고.
- 진수: 왜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에너지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요.
- 선영: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너도 시원한 게 좋잖아?
- 수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 선경: 전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 담당자를 지정하여 에어컨 온도를 28도로 유지하고, 교실을 비울 때는 소등했으면 좋겠습니다.

- ① 상현: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화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석현: 상대의 말에 동의하며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③ 지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화제를 조정하며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④ 수지: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소통에서 참여자의 갈등을 중재하여 담화의 흐름을 돕고 있다.
- ⑤ 선경: 다른 사람의 발언을 수용하며 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4~5] 다음은 선생님과 영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영 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 영희로구나. 점심은 먹었니?
 영 희: (어두운 표정으로) 아, 네…….
 선생님: 응?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어둡네.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영 희: 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선생님: 늘 밝고 명랑하던 영희가 웬일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보렴.
 영 희: 이번 국어 시험 성적이 엉망이거든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요.
 선생님: 국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영 희: 네, 특히 문법 부분은 거의 다 틀렸어요. 문법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그랬구나. 문법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 처음에 설명을 읽어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응용해보면 어려워지지. 틀린 문제 생각에 아직도 속상하니? 영희는 매사 꼼꼼한 학생이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본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영 희: 네, 선생님.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하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문법은 무조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틀린 것도 있고, 실수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것도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죠? 우리 학교에서 문법 수업 하면 선생님이 시잖아요.
 선생님: 그래? 몇 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영 희: (시험지를 꺼내며) ㉤여기 이 문제요. 선생님,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음운 현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답은 이미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영 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잘 들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4.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구체적인 말하기가 구두 언어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구두 언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대화 참여자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는 지시어를 통해 대화가 동일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희의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하며 듣는다.
- ② 질문을 하면서 영희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 ③ 칭찬을 하면서 영희가 말을 이어가도록 격려한다.
- ④ 영희의 말하기 방식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며 듣는다.
- ⑤ 영희의 말에 호응해 줌으로써 공감하며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

6. <보기>를 읽고,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을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빛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면 식물에게 빛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잎사귀가 제대로 크지 않고, 새롭게 돋아난 잎의 색상이 흐릿하며, 오래된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꽃이 피지 않는 등의 식물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럴 때는 식물의 자리를 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옮겨 주어야 한다.

<조 건>

- <보기>에서 유추하여 삶의 태도와 관련된 주제를 설정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글의 목적을 설득에 둘 것.
-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 ① 창문이 빛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② 빛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식물을 창가 쪽으로 옮겨주는 점을 활용하여, 반 친구들에게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해진 친구를 위해 도움을 주자는 글을 써야겠어.
- ③ 빛 가까이에 식물을 두어야 잘 자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웃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웃과 자주 왕래하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야겠어.
- ④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려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는 경각심을 주는 글을 써야겠어.
- ⑤ 식물이 창문으로부터 멀어지면 식물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점을 활용하여, 식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에게 식물 키우기에 빛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려주는 글을 써야겠어.

[7~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민의 생각>

최근 SNS를 활용한 디지털 글쓰기가 유행함에 따라, 휴대 전화를 통해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거나, 새로 올라오는 글에 바로바로 댓글을 남기는 일이 많아졌어. 그 덕분에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멀리 있는 친구와도 일상을 공유하게 된 점이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 교지에 SNS를 활용한 디지털 글쓰기를 특집 기사로 다뤄 볼까 해. 디지털 글쓰기의 유형을 먼저 조사하고,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에 대해서 써 봐야겠어.

<영주의 생각>

나는 디지털 글쓰기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글쓰기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쓰려고 해. 직접적인 대면은 줄어들고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에만 집중된다는 점이 아쉽더라고. 그래서 직접적인 소통 방식으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언급하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면서, 인식 전환을 강조해야겠어.

7. ‘수민’의 의견에 따라 글을 쓴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계획

- 현 상: SNS를 활용한 디지털 글쓰기가 유행함.
- 조사 내용: 디지털 글쓰기의 유형, 디지털 글쓰기의 장점
- 조사 결과: 개인 블로그, 사진 공유 블로그 등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디지털 글쓰기가 이루어짐. 디지털 글쓰기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서술 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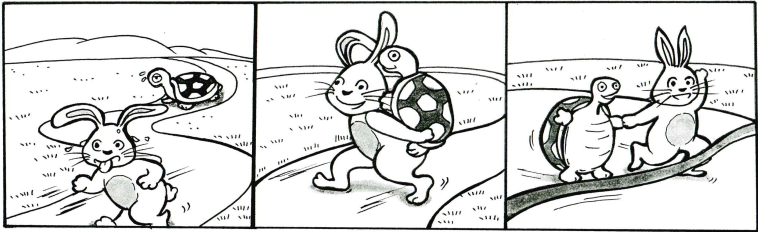
- ① 다양한 디지털 글쓰기 유형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 ② 글을 ‘쓰는’ 방식 외에 키보드로 ‘치는’ 방식의 글쓰기 수업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 ③ 친구 관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 디지털 글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 ④ 온라인상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소통 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 ⑤ 다양한 디지털 글쓰기 유형을 보여주면서 편리하고 신속한 소통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8. '영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너'는 가상의 존재입니다. 온라인을 벗어나 실제의 '너'를 만나고 싶습니다.
- ② 글 속에 아버지의 뒷모습, 친구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글을 읽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만나러 가 볼까요?
- ③ 내 글에 바로 댓글이 달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는데도 보입니다. 이런 게 진짜 친구 아닐까요?
- ④ 친구의 블로그에는 친구의 소식이 있습니다. 친구와 직접 만나면, 친구의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속마음 대신 소식만 궁금해 하는 우리를 반성합시다.
- ⑤ 친구는 많은데 친구가 없습니다. 바로 옆을 보면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가 옆에 있는데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 온라인상을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만화에 담긴 의미를 유추하여 생활글로 써 보자.



과제 수행을 위한 기록

오늘 글쓰기 과제는 '만화에 담긴 의미를 생활글로 표현하기'였다. 처음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원작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과제가 쉬울 것 같았으나, 이 우화를 패러디하여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낸 만화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고민 끝에 반 친구들과 함께 시험공부를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을 글감으로 정하여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준 학습 멘토링

처음과 달리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모습을 보며, 지난 시험 기간 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 경험이 떠올랐다. 나는 국어 성적이, 친구는 수학 성적이 부진했는데, 시험 준비를 할 때마다 이 과목들을 공부하느라 고생하곤 하였다. ㉠따라서 가끔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서로에게 부족한 과목을 ㉡가리켜 주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이해한 척했고, 그러다 보니 학습의 효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질문을 하며 공부하였다. ㉣그 결과 나는 국어 성적뿐만 아니라 수학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고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혼자 가는 걸음보다는 ㉤상호 서로 협력하며 함께 가는 걸음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9. '과제 수행을 위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전개한다.
- ②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주제를 구체화한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④ 감각적 어휘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⑤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르쳐'로 바꾼다.
- ③ ㉢은 앞 문장과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 ④ ㉣은 글의 일관성을 위해 바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⑤ ㉤은 뒤에 나오는 단어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11. <보기 1>의 ㉠, ㉡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1>

- ㉠ 나는 듬직한 만형이 좋다.
[나는 듬지칸 마텝이 조타]
㉡ 작문 시간에 해돋이를 주제로 글을 쓴다.
[장문 시가네 해도지를 주제로 그를 쓴다]

<보기 2>

- ㄱ.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든다.
ㄴ.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탈락한다.
ㄷ. 두 음운이 만나 그 중의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
ㄹ. 두 음운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덧붙는다.

- | | | |
|---|---|---|
| | ㉠ | ㉡ |
| ① | ㄱ | ㄷ |
| ② | ㄱ | ㄹ |
| ③ | ㄴ | ㄷ |
| ④ | ㄴ | ㄹ |
| ⑤ | ㄷ | ㄹ |

12. 다음 자료를 통해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단짝 친구는 바로 은수인데, 은수는 춤을 매우 잘 춘다. 쉬는 시간에 은수가 ㉠ 교실 앞에 나와서 춤을 췄다. 은수는 요즘 인기가 많은 가수와 ㉡ 비슷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해 주자 은수는 무척 즐거워했다.

탐구 결과	
‘바로’와 ‘매우’가 꾸미는 문장성분을 살핀다.	부사어는 다양한 문장성분을 꾸민다. ㉠
‘쉬는 시간에’를 ㉠에 옮겨 본다.	부사어의 위치를 바꾸면 부사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
‘매우’와 ‘가수와’를 생략해 본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에 ‘정말’을 넣어 본다.	부사어를 넣어 서술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
‘무척’ 뒤에 ‘-이나’를 붙여 본다	부사어는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

13.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에 추가할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관객들에게 최면을 걸고 모두 잠들게 했다.
- 정보 산업에 미래를 걸고 있었다.
-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

—<국어사전>—

걸다[잘다] [걸어, 거니, 거외] [동]

-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다.
-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을 품다.
- ㉠

- ① 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 ②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
- ③ 다른 사람이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 ④ 명예나 목숨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다.
- ⑤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14. 다음의 ㉠,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 생: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걸’은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걸’은 앞말에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걸’은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여기서 ‘거’는 의존 명사 ‘것’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지요. 그런데 ‘걸’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 ‘걸’은 ‘-ㄴ걸, -는걸’ 등과 같은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	㉡

- ①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 ②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 ③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 ④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뭐.
- ⑤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선어말 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리학자인 미셀은 아동의 절제력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4세 아동들을 방으로 데려가 마시멜로 사탕을 하나씩 나눠준 후,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동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기도 하고, 중간에 먹기도 했으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을 15년 후에 다시 보았을 때 오래 참은 아동일수록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미셀 박사는 이 실험에서 아동이 보인 행동, 즉 즉각적인 욕구 만족이나 보상을 스스로 지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절을 인내하는 능력을 ‘만족지연 능력’이라 불렀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충동적 욕구를 따르는 원초아(id)의 쾌락 원리보다 유용성을 고려하는 자아(ego)의 현실 원리가 우세할 때 만족지연 능력이 생긴다고 본다. 발달 과정에서 만족지연 능력은 문화적 영향력보다 충동을 억제하려는 자아의 강도에 의해 형성된다. 아동이 성숙하고 자발적인 자제력을 갖게 되면서 만족지연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이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는 이유를 지연된 보상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는 만족지연 능력이 강해지는 것을 아동의 인지적 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과 일정 시간 지난 후 받을 큰 보상이라는 선택 상황에서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인지적 능력, 즉 사건을 구조화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만족지연 능력을 어떻게 보는가? 이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적 강화를 통해 만족을 지연하는 행동이 더 가치 있고 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지연된 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감은 약속 이행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만족지연 능력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외에도 또래나 부모, 교사 등 사회적 모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만족지연 능력에 관한 연구는 한 개인의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위한 발달의 기초가 어릴 때부터 형성됨을 보여준다. 유해한 자극들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아동이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만족지연 능력은 아동기에 핵심적으로 계발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대상과 관련한 여러 이론을 고찰하며 의의를 밝히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충동을 억제하려는 자아의 강도에 의해 만족지연 능력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② ㉡에서는 만족지연 행동을 인지적 능력과 연결 지어 설명한다.
- ③ ㉢은 사회적 강화를 통해 만족지연 능력이 발달한다고 본다.
- ④ ㉠과 ㉡은 충동적 행동의 억제를 문화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과 ㉢은 만족지연 행동으로 인한 보상의 가치를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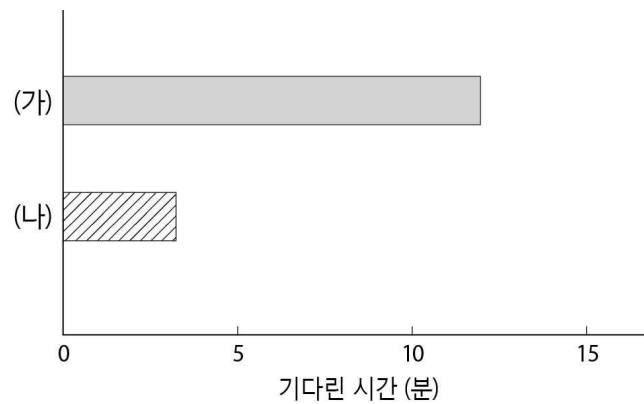
18.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실험 결과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1. 미술 시간의 상황

미술 시간에 두 학급의 아동들에게 크레용이 있는 책상에 앉게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책상에 놓여 있는 크레용 외에 다른 재료를 준다고 했다. 몇 분 후 (가)한 학급의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미술 재료를 주고, (나)다른 학급의 아동들에게는 재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사과하며 약속했던 새로운 재료를 주지 않았다.

2. 위의 상황을 경험한 아동들의 마시멜로 사탕 실험 결과



- ① 아동의 만족지연 능력은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 ② 아동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여 만족지연 행동을 학습한다.
- ③ 아동의 만족지연 행동은 욕구의 좌절을 경험할수록 강화된다.
- ④ 지연된 보상의 실현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지연 행동이 강화된다.
- ⑤ 아동이 외부의 조건 변화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자아를 조절할 수 있을 때에만 만족지연 행동이 발생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공급받고 현재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유할 권리이다. 이러한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정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주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주택정책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수요자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로 나뉘어진다.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나 위탁 기관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물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 임대 주택이 특정 지역에 밀집됨으로써 수요자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 공급됨으로써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의 제도로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다. 이는 기존에 있는 민간 주택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료에만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적절한 품질을 가진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초과 수요가 나타나거나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임대료에 비해 부족하여 현실적인 혜택을 바라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품질 관리를 병행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택정책의 유형과 특징
- ② 주택정책의 개념과 변천 과정
- ③ 주택정책의 적용 범위와 한계
- ④ 주택정책과 임대료 간의 상관관계
- ⑤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의 유형

2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② ㉡은 수요자의 자격 조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 ③ ㉠은 ㉡과 달리 적절한 공급 물량이 있을 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민간 주택 시장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 ⑤ ㉠과 ㉡은 모두 정부의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드러난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추론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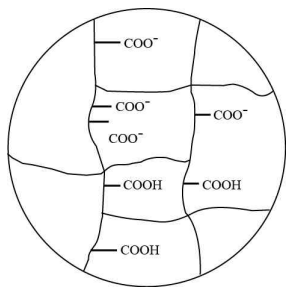
- A시는 실질적 주택 복지 정책 제도의 확대를 계획하고, 1인당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주택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지역신문에 게재했다. 시는 500가구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신청한 것은 30가구에 불과했다.
- B시는 5년 전 1,200세대의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이어 올해 1월, 같은 지역에 1,800세대를 추가로 완공한 후 분양 계획을 발표했으나 5년 전 신청자가 몰렸던 것과 달리 미분양 물량이 40%에 달했다.

- ① A시는 주택 보조금이 수요자의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해 본다.
- ② A시는 수요자에게 주택 바우처 제도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는지 점검해 본다.
- ③ B시는 공공 임대 주택의 주거 환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본다.
- ④ B시는 제공하려던 주택 보조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해 본다.
- ⑤ B시는 미분양 공공 임대 주택의 위치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인지 점검해 본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물질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모세관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는 물이, 가는 관을 따라 올라오는 현상으로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펄프나 면은 작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로 되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도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한다. 평소에 물을 바닥에 ㉠엎지르면 화장지로 닦아 내지만 닦아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장지로도 부족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흡수성(高吸水性) 수지’이다.

㉡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흡수성 수지의 구조]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먼저 분자들을 연결하여 긴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 분자사슬의 중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자사슬을 연결해 주면 그물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망상 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물질은 크게 물과 친한 성질인 친수성과 물을 멀리하는 성질인 소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상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로 히드록시기(-OH)나 카르복시기(-COOH)와 같이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한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더 높은 작용기를 사용할 경우 물뿐만 아니라 염도가 있는 액체에도 우수한 흡수력을 나타내게 된다.

* 중합: 단위체가 두 개 이상 결합하여 큰 분자량의 화합물로 되는 일. ≡중합 반응.

25.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모세관 현상은 물의 흡수력을 감소시킨다.
- ②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은 망상 구조를 가진다.
- ③ 분자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생긴다.
- ④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26. 밑글을 발표 수업의 원고라 할 때, 발표 수업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고흡수성 수지에 대하여

- 대상: 3학년 ○반 학생들
- 발표 내용 및 방법
 - 시각 자료를 통해 ㉣의 구조를 보여준다. ①
 -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 ②
 - ㉣이 ㉤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③
 - 사례를 들어 ㉣의 활용 분야를 자세히 보여준다. ④
 - ㉣의 특성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다. ⑤

27. 밑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을 거야.
- ②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어.
- ③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겠어.
- ④ 망상 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용 밀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을 거야.
- ⑤ 물기 제거를 위한 청소용 스펀지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제작할 수 있겠어.

28. <보기>는 ㉠과 관련된 설명이다. 사례로 든 두 단어의 관계가 ‘유의 관계’가 아닌 것은?

<보 기>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이더라도 둘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닐 때, 이 두 단어를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의 ‘엎지르면’은 ‘쏟으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① 철수는 신호를 (보았다/지켰다).
- ② 영희는 철길을 (넌었다/견넌다).
- ③ 형이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견넌다).
- ④ 나는 어젯밤에 전구를 (갈았다/바꿨다).
- ⑤ 날씨가 더워서 찬물을 (먹었다/마셨다).

[29~30] 다음은 두 학생의 읽기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반장인 내게 리더십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마키아벨리가 어떤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나 궁금했다.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작가는 ‘필요하다면 군주는 전통적인 윤리를 포기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당대의 혼란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군주는 권력 유지를 위해 무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체자레 보르지아’, ‘아카토 클레스’ 등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책을 읽은 후, 반장의 역할을 수행할 때 도움이 되도록 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했다. 하지만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학생 2: 나는 『군주론』의 차례를 먼저 보고 글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다. 서문에서 군주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어 보니 무력으로 백성을 제압하는 군주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왜 이런 군주의 모습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시의 이탈리아의 시대상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의 이탈리아의 상황을 아버지께 여쭙보았다. 그 당시는 전쟁과 권력 다툼이 많았던 때라는 얘기를 들으니 당시 군주의 모습이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택한 군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정보와 글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구현하려고 한 군주의 모습이 무엇인지 종합하면서 현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봤다. 현재에는 강압적인 리더보다는 군림하지 않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군주의 모습을 주장한 책을 찾아보려 한다.

29. 두 학생의 독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동	학생 1	학생 2
읽기 전	•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읽는 목적을 설정한다. ①	• 차례를 훑어보며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②
읽기 중	•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며 읽는다. • 필자의 생각을 파악하고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타당한지 판단한다. ③	• 예측한 내용과 비교하여 읽는다. • 글의 내용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필 의도를 추론하며 읽는다. ④
읽기 후	•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고 글을 요약해 본다.	•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 읽는다. •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에 맞게 의미를 구성해 본다. ⑤

30. ㉠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의 목적에 맞게 읽으려면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재조직해야 해.
- ②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해.
- ③ 글의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면 자신의 경험과 문맥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해.
- ④ 글의 주요 정보를 구조화하여 이해하려면 문장,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해.
- ⑤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책의 내용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과 비판할 부분을 가려내야 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 자사는 백학선*을 찾으려고 남자로 변복한 조 소년을 오래 옥중에 가두고 추궁하였으나, 그의 철석간장을 굽히지 못하여 주야로 근심하다가, 하루는 홀연히 깨닫고,
“소년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도 잔인하다. 백학선을 잃은 것도 또한 하늘이 주신 운수니 할 수 없다.”
하고, 조 소년을 옥에서 석방하였으나, 은하 낭자는 옥중에서 수척한 심신이 일시에 긴장이 풀리는 통에 새로운 충격으로 기절하더라. 시비 춘당이 정성껏 간호한 공으로 낭자가 소생하여 꿈에 본 천상의 사변을 생각하고 심중으로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모하는 천정배필인 유 한림과 만날 희망을 품게 되더라.
출옥한 은하 낭자는 유 한림을 찾으려고 곧 청주로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수십 일 만에 수백 리를 갔으나 기력이 더욱 좋아져서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계속 길을 달려가니, 하루는 도중에서 홀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다행히도 시비 춘당이가 아는 형주 사람이니라. 춘당이 반가워하면서 순무 어사의 소식을 물으니,
“그 유 어사께서는 신병으로 황제께 표를 올리고, 지금 고향으로 가서 휴양하신다더라.”
춘당이 낙망하고 은하 낭자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낭자가 깜짝 놀라며,
“네가 잘못 들은지 모르니 다시 자세히 물어 보라.”
하고 반신반의로 근심하였으니, 춘당이 다시 아는 사람에게 묻기를,
“순무 어사께서 병환으로 고향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지금 군관으로서 직접 호송해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 말을 다시 춘당에게 전해들은 은하 낭자는 하는 수 없이 길을 돌이켜서 남경으로 향하더라.
한편 유 어사는 백학선을 선사한 옛날의 여자를 사방으로 염탐하였으나 종시 만나지 못한 탓으로 심화병을 얻고 증세가 날로 위독해 갔으므로, 하는 수 없이 황송한 사연으로 표를 지어서 병치료의 휴양을 황제께 청하였더니 황제가 보시고 병세가 위중함을 아시고 근심한 끝에, 어사를 대사도로 승진시키고, 그의 부친 형주 자사를 예부상서로 삼아서 즉시 서울로 올라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므로 위세가 더욱 융성하고, 부귀 또한 혁혁하더라.

대사도가 병중의 행차를 강행하여 궐하에 명령을 받드니, 황제가 반갑게 맞아 위로하시고, 어서 물러가서 병을 조리하라고 분부하시니,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중으로 돌아와서 휴양하였으나, 가슴에 품은 근심은 더욱 간절하기만 해서, 부귀공명도 헛된 꿈만 같고, 사모하는 여자의 생각만 인생의 보람 같아서 믿을 수 없더라. 뒤 이어 상경한 부친이 아들 사도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근심하고 천하의 명의를 청하여 약을 쓰는 한편 병의 원인이 여자를 사모하는 점에 있음을 짐작하고, 좋은 규수에게 구혼하려고 널리 간택하였으나 마땅한 곳이 없어서 부친은 근심 끝에 멀리 하향현의 현령 전흥로를 청하여 상의하기를,

“내 아들의 성질이 특이하여 공명을 이룬 후에 숙녀를 구하겠다 하므로, 그 뜻에 맡겨서 지금껏 성혼하지 않았더니, 이제 공명이 족하게 되었으니 더 기다릴 것이 없어서, 널리 구혼코자 하나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근심 중이니, 형은 나를 위하여 마땅한 숙녀를 천거해 주시오.”

하고, 신신 부탁하였다.

“사도의 혼사는 염려 마십시오.”

전 현령은 뜻밖에 침착한 태도로 대답하거늘,

“그게 무슨 말이요?”

유 상서가 놀라서 다시 묻기를,

“소제가 벼슬살이를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조소저가 무죄 애매함을 가련히 여겨서 이리이리하여 피하라고 일러서 놓아 보냈사옵니다. 그 후에 백로의 말을 들은즉, 그 여자가 분명히 백로가 심중에 맹약한 여자로 믿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후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유 상서가 다시 놀라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 애가 왜 나를 지금까지 속이고 병이 되도록 있느냐고 탄식하기를,

“그러니 생각나는 일이 있소. 내가 기주에 자사로 있을 때 어떤 관속이 보고하기를 어떤 선비가 백학선을 가졌더라고 하기에, 내가 곧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위세로 백학선을 바치라고 위협하였으나 끝끝내 죽기로 거절하기로 옥중에 가두어 두었으나, 해가 지나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므로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석방한 일이 있었소. 그런데 그 선비의 음성이 옥소리 같아서 여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몸을 검사하려다가, 아직 소년이라 음성이 그러려니 다시 생각하고 그냥 석방하였는데, 지금 현령의 말을 듣고 보니, 여자가 위급한 경우에 남복을 하고 난을 피하려 하였던 모양이구료.”

[A]

하고, 아들 사도를 돌아보고 은근히,

“부자지간에 이런 사연을 왜 오래 속이고 있었느냐. 네가 그 여자의 생각으로 병까지 났지만, 그 여자인들 어찌 참혹하지 않으랴. 그 여자 역시 필경 너를 찾아다니며 천신만고 할 테니 어찌 가없지 않으랴. 그 여자가 필경 남경으로 갔을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오랑캐 가달이 남경을 점령하고 있으니, 혹은 그 여자가 도적의 화를 입고 죽었을지도 모르니 이 일을 어찌하랴. 옛말에 일녀함원(一女含怨)하면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 하니, 어찌 너에겐들 양화가 없겠느냐?”

“부친의 말씀들을 들으니, 가슴이 막혀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 사도는 망연히 앉아 있었고 사도의 외숙인 현령이 위

로하며,

“조카는 부질없이 너무 염려 말고 마음을 진정하고 몸을 회복하라. 하늘이 이런 숙녀를 내심이니, 어찌 조카의 정열이 헛되리오. 반드시 하늘이 도울 것이니, 머지않아 만나게 될 거다.”

“아아, 그 여자가 저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제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마땅히 죽기를 결심하고 남경으로 가서 그 여자를 찾아서 사무치는 원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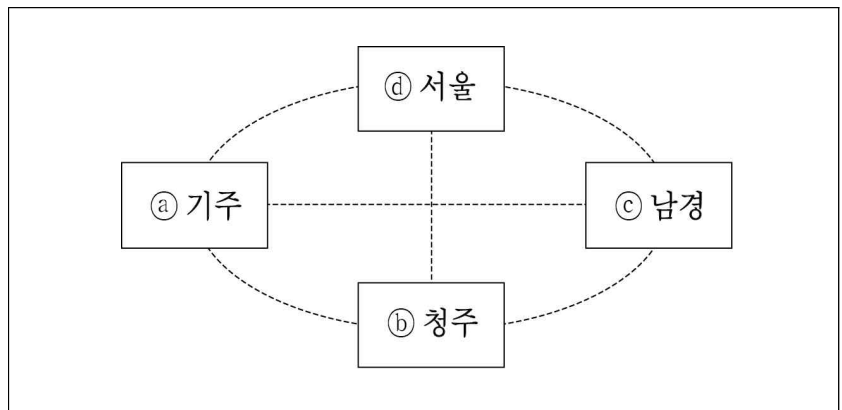
— 작자 미상, 「백학선전」 —

* 백학선(白鶴扇): 백학 모양의 그림이 그려진 부채.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만남과 이별을 모티프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 전개에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새로운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32. 윗글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하 낭자’는 ㉠에서 백학선 때문에 ‘유 상서’에 의해 고난을 겪는다.
- ② ‘은하 낭자’는 ‘유 한림’을 찾으러 ㉡로 가는 길에 ‘유 한림’을 만나지 못하는 좌절을 겪는다.
- ③ ‘유 상서’는 ㉣로 ‘전 현령’을 불러 ‘유 한림’의 혼사 문제를 의논한다.
- ④ ‘유 한림’은 ‘은하 낭자’가 ‘유 상서’와 만나 ‘유 한림’의 행방을 물었음을 ㉣에서 알게 된다.
- ⑤ ‘유 한림’은 외숙인 ‘전 현령’의 말을 듣고 ㉣에서 ㉢로 떠날 결심을 한다.

3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다.
- ② 증거물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한다.
- ③ 남다른 관계를 강조하여 상대방을 질책한다.
- ④ 권력자에 기대어 상대방을 설득한다.
- ⑤ 정중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회유한다.

34.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유 한림’은 ‘은하 낭자’를 사모하여 ()하고 있군.

- ① 오매불망(寤寐不忘)
- ② 연목구어(緣木求魚)
- ③ 결자해지(結者解之)
- ④ 천석고황(泉石膏肓)
- ⑤ 부화뇌동(附和雷同)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경(明鏡)에 티 끼었거든 닦 주고 닦을 줄
아이 어른 없이 다 알고 있건마는
닦 없이 닦을 명덕(明德)을 닦을 줄을 모르느냐.

<제1수>

성의관(誠意關)* 돌아들어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한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어찌타 진일 행인(盡日行人)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제2수>

구인산(九仞山)* 긴 술 베어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내어
길 잃은 행인(行人)을 다 건너려 하였더니
사공도 변변치 못하여 모강두(暮江頭)*에 버렸느냐.

<제3수>

— 박인로, 「자경(自警)」 —

* 성의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구인산: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무어: 만들어.

* 모강두: 저무는 강가.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 ㄷ.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 ㄹ.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목의 의미

「자경(自警)」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대한 자탄으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함.

작가의 창작 의도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덕행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교적 수양을 권함.

단어의 의미

- 팔덕문(八德門): 팔덕을 갖춘 문. ‘팔덕’은 유교의 윤리 강령.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正道(正道)를 의미함.
-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제할 배. 인간의 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음.

- ① <제1수>에서 ‘명덕’을 닦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② <제1수>에서 작가는 덕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제2수>에서 ‘크나큰 한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인’이 만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④ <제3수>에서 ‘행인’을 건너게 하려는 화자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제3수>에서 작가는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포부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암은 도시 사람들이나 걸리는 거니께 그냥 드셔.”

했지만 김도 찢리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김도 요즘은 매일같이 농약에 행구다시피 한 물건을 서울 장사꾼들에게 넘겨왔던 것이다. 물론 풋고추를 밭에 세워놓고 볶히는 약만큼 독성이 강한 건 아니었다. 다만 물을 팔백 배 가량 타서 써야 할 마릭스 유제를 사백 배 정도로 섞어 썼을 따름이었다.

[A] 김은 에멜무지로 갈았던 김칫거리가 때를 잘 타 이 달은 벌이가 괜찮았다. 열무 갈아 한 뭇에 십여만 원 다발을 만져보기는 처음이던 것이다. 그러나 요새처럼 김칫거리 푸성귀가 고깃값보다 셀 때 그만한 재미도 못 본다면, 어느 왕조에 밥상에서 도막반찬 구경을 해볼 터인가.

그는 매일 아침 이슬이 자면 열무와 배추밭에 농약을 질게 끼었고 진딧물이 깨끗이 쏘아진 저녁나절마다 삼백 단씩 뽑아 밭에 왔다가, 새벽에 들이닿는 경동시장 상인들에게 맞돈을 받으며 넘겨주곤 했다.

겉보매가 깨끗하다는 이유로 두어 번 행구어 거의 날로 먹다시피해온 김칫거리에 농약을 퍼붓는 것을 김도 싸가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허지만 구태여 없어진 지 오래인 양심이란 것을 뒤져낼 건더기는 없다더라도, 어찌다가 TV에서 농약 공해가 어떻다고 떠드는 소리가 귓결에 닿으면 한참씩이나 뒷

맛이 개운찮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면서도 김은 ㉠공연히 자기만 주눅들어들까 답이 없다고 여겼다.

김은 농약 우린 물을 김칫국이랍시고 먹는 도시 사람들에게는 책임의 절반을 물어야 한다고 믿었다. 배춧잎새에 벌레 지나간 자국이 뚫려 있거나 진딧물이 붙은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먹는 사람들은 벌레 기미가 있을 듯한 채소라면 진저리를 쳐가며 제쳐놓고 매끈한 것만 첫째로 여긴다. 장사꾼들도 양젓물로 씻었건, 농약에서 건졌건, 아랑곳없이 물건이 깨끗한 것만 찾는다. 한 톨이라도 더 벌자면 농사꾼도 장사꾼 눈에 드는, 아니 직접 먹는 실수요자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수룩하게 안 보이는 사람들의 먼 장래 건강까지 걱정하며 농약, 극약을 피해 영농한다면,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만 실농이 있을 따름이었다.

“㉡내남적웁이* 농약 안 쓰구 농사지을 수는 읍으니까…….”
계장이 물러앉았다.

“게, 나두 위쩌다가 서울 죽은집이나 당질네를 가면 앉자마자 으레 허느니 그 소리라. 벌레나 진디 읍는 푸성가리는 사 먹지 마라— 이게 노래라구. 그러면 벌레먹은 푸성가리는 농약이 있어두 순박헌 농민이라 양심상 안 뿌린 게냐구 묻더면…… 게, 이 한심헌 세상에 두 심 쓸 겨를이 워디 있느냐구, 농약이 있어두 딴 일에 치여 바빠서 못 찌엿은 게니 그런 늑만 골라서 사먹으라구 이르는데, 그래두 말 안 듣데. 송장도 먹구 죽은 송장은 빗갈이 좋으나 위땡다나 하면서, 뽕기 좋은 게 먹기두 좋다는 디는 못 말리겠더라구…….”

고의 말을 받아 뒤는 김이 이었다.

“우리나 서울 것들이나 서루 저기허기는 매일반인겨. 서루 다다 식여먹잖으면 못 살게 마련된 세상인디, 촌사람만 독약 쓰지 말라는 법이 있담? 시방은 사람 사람이 먹구 쓰는 게 죄 약이 아니면 독으루 알구 살어두 저기헌 세상인디, 새뽕 빠지게 가로왈 세로왈 헐 게 뭐라나?”

“허기는 그려. 뭐 한 가지 맘놓구 쓸 게 읍으니까. 근래 근대화 바람에 일어난 공장에서 맨든 것이면 싸구려루 내던지는 수출품은 안 그래두, 내국인헌티 팔아먹는 건 공해 아닌 게 읍거든. ㉢특히 농촌으로 흘러오는 게면 열에 일고여덟이 불량제품이구 가짜란 말여.”

황의 말을 덮으면서 김이 한마디 보탰다.

“물건뿐이담유. 내 말이 저기헌 것이, ㉣요새 텔레비 한 가지만 여겨보라구. 활동사진이구 굿이구 간에 여편네들이 저기헐 게 있다? 자식들이 한 가지나 배울 게 있다? 공해가 벨것 아닌겨. 사람 사는 디 이롭잖은 건 죄 공해거든. 일 년 열두 달 텔레비 모셔봤자 눈깔에 생혈이나 오르지 소용있담? 여편네 밤마다 마실 땡기메 녀의 텔레비 앞에 턱살 쳐들구 사는 꼴 안 보자구, 송년 곡석 돈 사가며 들여놓구 인저는 후회가 막급일세. ㉤신문을 보자면 열통이 터지구, 무슨 들어볼 만한 소식이나 읍으까 허구 위쩌다가 틀어보면 네미— 사람이 얼마가 죽구 얼마가 도적질했다는 애기뿐이지, ㉥연속극인지 급살인지는 늑은이구 밤쇠이구 몽땅 한자리에 뉘놓구 앓은 디서 허구헌 날 늑 아니면 품앗이구, 흘앗이 아니면 생맥이 천지*니, 경향간에 공해버텨 평준화돼 가 지구설랑…….”

—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

* 내남적웁이: 너나없이, 누구나.

* 늑~천지: 드라마 속 내용이 윤리적이지 못함을 비판하는 말.

37. [A]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인물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사물의 섬세한 묘사로 독자의 상상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38. ㉠에 드러난 인물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
- ② 농민과 도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③ 도시 사람들에 비해 농민들이 더 우월하다.
- ④ 장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따진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우리 동네 황씨」에는 산업화로 유입된 도시 문화를 접하면서 겪는 농촌 사회의 변화가 담겨져 있다.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도시의 대중적 문화가 농촌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문화를 밀어내면서, 이기적이고 물질중심적인 인간으로 변모되는 농민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산업 사회에서 농촌이 도시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공간인 동시에 도시에 만들어진 공산품을 소비하는 공간이 되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 ① ㉠: 농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쓰는 농민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
- ② ㉢: 농촌으로 들어오는 공산품이 대부분 불량품이라는 말에는 농민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이 담겨 있어.
- ③ ㉣: 배울 것 하나 없는 텔레비전이라는 말을 통해,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드러나고 있어.
- ④ ㉤: 도시 소식은 흉악한 것들이 많다는 말을 통해, 삭막한 도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인정 넘치는 농촌 문화를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 농민들이 뉘 놓고 연속극에 빠져 있는 상황을 통해 도시 문화가 농촌의 건강한 문화를 해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寂寞)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은, 「눈길」 -

(나) 보신각종이 깨져 있다는 사실은 시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몇 해 전부터 나는 이 종을 시로 써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군열이 생겼는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습시다. 원래 종은 깊은 산중에서 나무와 숲에 쌓여 사님의 테두리를 지으며 감은 가슴을 더욱 안으로 감아 버리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에 있는 종일수록 그 소리는 맑고 넓게 퍼져 갑니다. 구한말에 외국인 선교사가 찍은 보신각종은 비록 낡기는 했지만 목조 건물에 싸여 있었습시다. 현재의 보신각 주변은 시멘트 건물로 둔갑해 버렸지요. 주변 종로 네거리 건물들이 한결같이 콘크리트 빌딩입니다. 가서 만져 보면 알겠지만 보신각 기둥들도 한결같이 콘크리트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저 종이 옛날과 같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콘크리트 기둥 때문이요 주변 빌딩 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놈의 종은 한 번 땡, 하고 울면 그 소리가 멀리 은은하게 퍼져 가기는커녕 사방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제가 낸 소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콘크리트에 부딪혀, 되받아 나오는 소리의 충격으로 인해 종은 군열이 갑니다. 즉 저놈의 종은 제가 낸 소리를 콘크리트 기둥에 의해 제 스스로 되받으며 그 충격으로 제 몸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의 소리로 스스로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한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쓰고 있는 시도 이와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 조정권, 「군열」 -

40. (가)와 (나) 두 시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창작의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회상의 방식을 통해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 ③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담담한 어조로 화자와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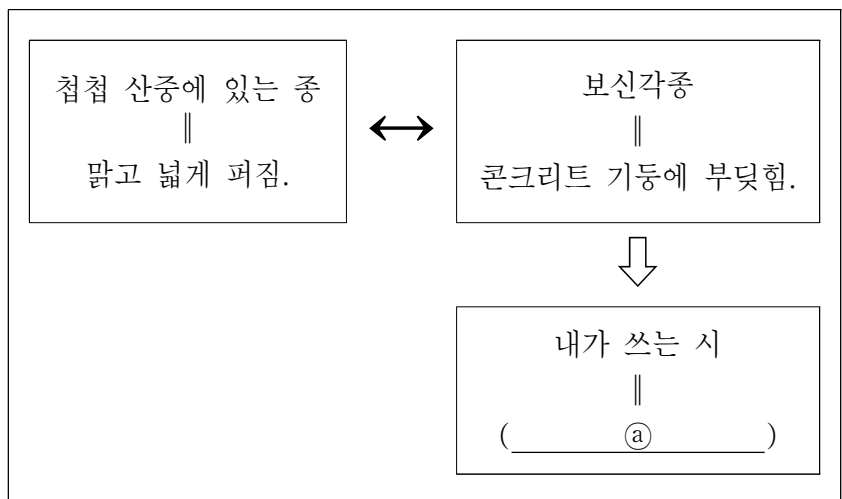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눈길」은 삶의 허무로 인해 방황하고 고뇌하는 상황에 대한 시인의 성찰을 다룬 작품이지만, 작품 속에는 이미 이러한 허무적 경향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내면적 지향이 나타나고 있다. 화자는 눈 덮인 길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긴 방황과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① ㉠: 현재의 시점에서 화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있군.
- ② ㉡: 화자는 그동안 긴 방황의 시간들을 겪었겠군.
- ③ ㉢: 화자는 명상을 통해 허무를 느끼고 있군.
- ④ ㉣: 화자는 내적 고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군.
- ⑤ ㉤: 화자는 내면적 방황을 마치고 고뇌에서 벗어났군.

42. (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제 목소리 대신 다른 목소리를 냄.
- ② 세상을 향한 외침이 울림을 주지 못함.
- ③ 현실 세계를 긍정적 관점으로 파악함.
- ④ 외부와의 조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함.
- ⑤ 말하고자 한 내용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아 되돌아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엄마 인희는 50대의 가정주부이다. 남편은 월급 의사이고,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이며, 아들 정수는 삼수생이며 딸 연수는 직장인이다.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그녀는 오줌소태 증세로 병원을 찾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결과가 나온다. 수술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되지만 하자,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 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다가 이내 포기한다.

S# 51. 화장실 안

엄마, 할머니(변기 위에 앉아 있고)에게 새 속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윗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 주고.

엄마 (할머니 눈을 보며, 맘 아픈 걸 참고) 좋아요?

할머니

엄마 (쪼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엄마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어왔는지 엄마 맘을 알 것 같다.)

엄마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 할 때, 애들두 없구, 외롭구 그럴 때도..... 어머니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밋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젠 기억 하나두 안 나지?

연수(E) 엄마?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밖에 대고) 저리 가, 이년아!

엄마 (놀라,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맘 알죠?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걸 참고)

엄마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허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며 울고) 아이고, 어머니.....

S# 67. 차 안

엄마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B]

엄마 한 번만 더 불러 봐.

정수 (목이 메어) 엄.....마. —————

엄마 (눈가가 그렇게)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두,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두..... 니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정수 (힘들게 끄덕이고)

엄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 주고) 이거, 니 마누라 줘.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엄마,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멧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엄마 당신은..... 나 없이두 괜찮지? —————
정철 (보면)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C]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엄마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애?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
엄마 언제? 어느 때?
정철다.
엄마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엄마 (안타까운 맘. 보며)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깼을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깼을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킴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D]
엄마 (눈물이 그렇게, 괜히 옷깃만 만지며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르고)
정철 (엄마를 안고, 눈물 흘리고)
엄마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엄마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
정철 고마웠다.

S# 74.

1. 정원에서 둘 고르는 행복한 얼굴을 한 엄마와 정철. —————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엄마.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엄마와 정철. [E]
4. 거실 소파에서 엄마,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엄마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고. —————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엄마는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은 물기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안고 있다.

정철 (엄마의 죽음을 느낀다, 엄마를 보지 않고) 여보.

엄마

정철 여보.....

엄마

정철 인희야.

그러나 엄마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앓다물고 우는데, 눈물 뚝 떨어져 엄마의 뺨 위로 흐른다.

엄마,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고,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진다.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명이 인물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소도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효과음을 삽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장면이 구성되고 있다.

44. 윗글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장면에 맞는 촬영 방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안타까움 등의 복합적 심정이 담긴 표정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 ② [B]는 애써 웃으려는 ‘엄마’와 슬픔을 참는 ‘정수’의 모습을 번갈아 카메라로 잡아 이별을 앞둔 모자간의 아픈 심리를 드러내면 좋겠어.
- ③ [C]는 ‘정철’에 대한 ‘엄마’의 바람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여 ‘정철’이 ‘엄마’의 부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④ [D]는 가족들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듯 삽입하여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정철’의 심정이 부각되도록 하면 좋겠어.
- ⑤ [E]는 ‘엄마’와 ‘정철’의 일상적 장면을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 이별을 맞는 두 사람의 애틋함을 보여주면 좋겠어.

45. <보기>를 ‘S# 76’으로 바꿨을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침실 가득 눈부신 햇살이 밀려들었다. 아침이었다. 햇살은 마치 무슨 축복인 양 쏟아져 들어와 잠든 인희 씨의 하얀 얼굴을 비춰 주고 있었다. 정철은 잠에서 깨자마자 조용히 아내를 불러 보았다.

“여보.”

아내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에서는 이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인희야!”

정철은 오열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서히 몸을 굽혀 식어 버린 아내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입술에 입맞추며 그렇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었다. 어느 곁에 고인 슬픔인지, 깊이 잠든 인희 씨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었다.

- ① ‘정철’의 심리와 조용하는 배경으로 교체한다.
- ② ‘정철’과 ‘인희’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삽입한다.
- ③ 죽음을 맞는 ‘인희’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 ④ 삶에 미련을 갖는 ‘인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⑤ ‘인희’를 보내는 ‘정철’의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여 보여준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